

방통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문

-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및
일선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방송통신위원회(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11월 28일 (목)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등 유통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과 보호 업무에 있어서도 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를 대신하여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기관도 신고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와 여가부는 ‘온라인그루밍안심앱’을 협업으로 개발하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원스토어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이 현실 범죄로 연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그루밍안심앱’은 온라인 그루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센터로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앱으로, 아동·청소년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신이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다양한 협업 노력이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방통위와 여가부가 협업으로 제작한 ‘온라인그룹밍안심앱’이 온라인 그룹밍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및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책임자	과 장	김우석 (02-2110-1560)
		담당자	사무관	김기호 (02-2110-1549)

